

이집트 군장성 하림 익산 방문

하림, 수직계열화 사업방향·전망 등 브리핑 홍보... 부회장·CC농장 등 원가절감시스템 성공모델 소개

(주)하림 (대표이사 이문용)은 “이집트 장성급 2명(Haytham Ali Zaki와 Ehab Saber Youssef)의 귀빈방문을 통해 (주)하림의 수직계열화 사업방향과 전망 등을 브리핑하면서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14일 오후 12시 30분에 (주)하림 회의실에서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Haytham Ali Zaki 장군, Ehab Saber Youssef 장군, (주)자이노베이션 임직원(회장 이종률, 부회장 겸 대표이사 김진성, PLC해의 총괄사장 정홍길, 해외 총괄 본부장 김광식, Dr. Youssef Mohamed Hassan Aly Elkomy, 김지은 대표, (주) 하림 문화전략팀장 송기택 수석부장과 2명 등이 참여해 열린 (주)하림 브리핑 및 현장시찰 등이 이루어 졌다.

송기택 수석부장은 “(주)하림은 수직계열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양계 분야에서 성공한 모델이며 도계장 4만령중 2만령 도계장, 가공공장 및 냉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주)

하림 도계장은 정음·익산 2개가 있고 그 시설에서 일 도계 60만수, 연 2억수 닭을 도계하며 900여가지 육가공이 다양하게 생산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요 브리핑 내용은 “(주)하림의 수직계열화를 하는데 도계장, 부화장, 병동시설, 육가공시설, 사료공장, GPS농장,PS농장 및 CC농장 등 위탁농장 및 직영농장 등의 시스템 구조가 필요하며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절감 시스템을 성공모델로 소개했고 이집트 장성들과 함께 방문한 (주)자이노베이션 임원들도 (주)하림의 노하우와 기술에 큰 감동을 받았다.

실제로 이집트 장성 및 (주)자이노베이션 임원들은 하림의 닭 생산원가 및 연 생산량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주)하림의 양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지 의사타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주)하림 관계자는 “(주)하림



(주)하림 (대표이사 이문용)은 “이집트 장성급 2명(Haytham Ali Zaki와 Ehab Saber Youssef)의 귀빈방문을 통해 (주)하림의 수직계열화 사업방향과 전망 등을 브리핑하면서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14일 오후 12시 30분에 (주)하림 회의실에서 밝혔다.

의 양계기술 및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기회를 희망한다면 현재 동남아 국가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청년 정규직 채용 중기 3년간 2700만원 지원

고졸자, 기업 취업 때 400만원 장려금 지급

앞으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연 900만원씩 3년 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1035만원 이상의 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를 통해 앞으로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단계별 및 분야별로 구조적 대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예코세대 유입기간(2018~2021년) 중청년실업률이 추가로 1~2%포인트 낮아지도록 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률은 2021년까지 8%대 이하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예코세대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을 말한다.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말까지 태어난 세대로 출생률이 비교적 높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예코세대 유입 등 인구구조 요인에 대응해 ‘3대 원칙’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청년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재정 직접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 추진’ 등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과제는 ▲취업청년 및 고용증대 기업 지원 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연봉의 1/3 수준(900만원)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해 소득(세금감면), 자산(청년내채용공제),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연 ‘1035만원+α

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 대기업도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 준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 중 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의 성공불용자와 성공했을 때 5000만원의 추가 투·융자가 지원된다.

기술혁신 창업자 중 최대 3000명은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전액 투자토록 유도하고 소진시 추가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기업과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

현직 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사전교육과 매칭서비스로 연봉 3200만원 이상의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취업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을 통해 2000명에서 2021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400만원의 장려금을 선(先)지급한다.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도 확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준 경력 장병 27만명 중 6만900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군 장병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도 나눈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 과제도 마련했다.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한다.

집중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수립·추진한다.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방안과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고령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대책이다”라며 “구조적인 대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분야별로 상세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무주덕유산 CC 골프장 개장

지형적 특성 살린 18홀 명품코스 '정평'

향긋한 꽃향기와 싱그러움이 가득한 봄의 전령으로 초록빛 에너지의 기운이 감도는 새로운 계절을 맞아 부영그룹(회장 이종근) 무주 덕유산CC가 15일 2018 골프 시즌을 시작한다.

생동감 넘치는 덕유산 대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만끽하며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무주덕유산CC는 해발 900m의 고지에 자리하고 있는 청정야생고원 골프장이다.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자생식물과 기암 등 지형적 특성을 최

대한 살려 아늑도 퍼머가 설계한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야드 3,251 / 아웃코스 파36, 야드 3,472)는 과감한 도전의식과 세심한 전략성이 요구되는 명품코스로서 이미 골퍼들에게는 정평이 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관계자는 “올 봄 무주덕유산CC를 찾는 골퍼들이 아름다운 꽃나무들의 고운 자태를 감상하며 낭만적인 라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번호 063-322-9000 ☎ 골프예약 063-320-7500 /무주=전문선 기자

ECO융합섬유연구원, 의류·생활용 섬유 기획 개발 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ECO융합섬유연구원(김인관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섬유수출입조합(주관)과 함께 국내 의류·생활용 기업의 소재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의류·생활용 섬유 기획 및 개발 역량강화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의류용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벤더 연계 수요맞춤형 기업으로 시장성이 높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기업을 우대한다.

신청기업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

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차별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 제작 재료비 지원, 패션소재 트렌드 정보 및 선진 샘플 제공, 1:1 맞춤 전문가 기획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유망디자인 연계 의상 제작 지원, 신소재 품평 및 바이어 연계 등을 지원한다.

2018년도 의류·생활용 섬유 기획 및 개발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ECO융합섬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ex.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 다양해져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상환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결과,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해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뉴시스

전주매일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